B_N -결함 질화붕소 나노튜브(B_N -BNNT) 벽면에서의 CO_2 흡착/전환 반응에 대한 ONIOM 계산 연구

ONIOM study on CO₂ adsorptions and conversions on B_N-BNNT sidewalls

최희철^{a*}, 박영춘^b, 김용현^c, 이윤섭^b ^{a*}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(E-mail:hcchoi@nfri.re.kr), ^bKAIST 화학과, ^c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

초 록 : QM/MM 혼성 이론 방법인 ONIOM 계산을 통해, CO_2 가 B_N -BNNT 벽면에서의 흡착 반응과 H_2CO_3 로의 전환 반응 메 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B_N -BNNT가 효과적인 CO_2 흡착제와 H_2CO_3 생성 반응 촉매로 개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.

1. 서론

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(CO_2)는 지구 온난화 요인의 55 %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 또한 2005년 2월 교토 의정서 공식 발효로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저감 의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CO_2 저감 기술 확보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. 이에 따라 우수한 CO_2 흡착 성능을 갖는 새롭고 다양한 흡착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넓은 표면적을 갖는 탄소 나노 튜브(CNT)의 흡착 성능이 기존의 다른 흡착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, CNT의 물리/화학적 성질은 튜브의 직경과 기하 구조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내며 정제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. 이에 반해, CNT와 외형적으로 매우 흡사한 질화붕소 나노튜브(CNT)는 구조와 직경에 상관없이 열적,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CO_2 를 비롯한다른 공해 물질들의 제거제나 흡착제로서 응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, 결함을 도입한 CO_2 흡착 반응과 CO_3 로의 전환 반응에 대해 양자화학 이론 연구를 수행하였다.

2. 본론

본 연구에서는 N 원자 한 개가 B 원자로 치환된 zigzag형의 (8,0) B_N -BNNT를 기본 모델로 양자화학 이론계산을 진행하였다. B_N -BNNT의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CO_2 의 흡착/전환 반응 메커니즘을 계산하기 위해 양자화학 이론 혼성방법(QM/MM) 중 ONIOM을 사용하였다. CO_2 흡착 과정을 보면, CO_2 가 튜브의 B_N -결함에 접근하면서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B_N -결함에 제공되어 선형의 CO_2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물리흡착이 일어나고 곧이어 튜브로부터의 전자-역공여 과정에 의해 C=O π -결합이 깨지면서 CO_2 가 굽은 형태로 바뀌는 화학흡착이 일어난다. 그림 1과 같이 B_N -결함에 흡착된 CO_2 의 흡착에너지는 튜브의 직경에 상관없이 실온에서의 CO_2 자유 에너지보다 높게 계산되었으며, 그림 2에서와 같이 B_N -BNNT 벽면상에서 CO_2 가 두 개의 물 분자와 반응할 경우 전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H_2CO_3 가 효과적으로 생성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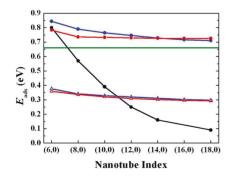


Fig. 1. CO_2 adsorption energies on B_N in various (n,0) BN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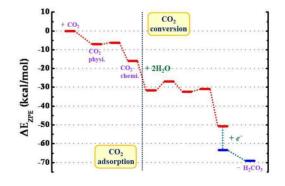


Fig. 2. Energy profile for CO_2 adsorption and conversion on B_N -BNNT sidewalls

3. 결론

QM/MM 혼성 이론 방법인 ONIOM 계산을 통해, CO_2 흡착 반응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. 다른 형태의 나노튜브와 달리, B_N -결함에 흡착된 CO_2 의 흡착에너지는 튜브의 직경에 상관없이 실온에서의 CO_2 자유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B_N -BNNT는 CNT나 금속-유기 구조체(MOF)에 비해 훌륭한 CO_2 흡착제로 사용될 수 있다. 또한 CO_2 와 H_2O 의 반응에서, B_N -BNNT가 반응의 에너지 장벽을 현저히 낮춰 CO_2 가 H_2CO_3 로 쉽게 전환게 하는 효과적인 촉매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.

참고문헌

- 1. F.Maseras, K.Morokuma, J. Comp. Chem. 16 (1995) 1170.
- 2. H.Choi, Y.C.Park, Y-.H.Kim, Y.S.Lee, J. Am. Chem. Soc. 133 (2011) 2084.